

2025년도

2025년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2025. 11.



(전주시의회)



목 차



I. 출장 개요	2
1. 출장 목적 및 추진 방향	2
2. 출장 개요	3
II. 출장 내용	6
1. 방문 지역 일반 현황	7
2. 우리 시 관련 사업 현황	9
3. 벤치마킹 및 출장내용	12
III. 시사점	21
1. 우리 시 도입과제	22
2. 기대효과	24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및 추진 방향
2. 출장 개요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및 추진 방향

□ 출장목적

- 가나자와 · 오사카의 보존-혁신, 생활SOC-관광, 환경인프라-시민수용성 균형 원리를 종합 파악하여 전주시 중장기 경쟁전략의 참조틀 확보함.
- 단발 시찰이 아닌 정례 교류(자료교환 · 공동세미나 · 직원교류) 체계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확립함.
- 전주시 여건에 맞는 저비용 · 고효율 운영모델과 즉시 착수 가능한 파일럿(원도심 · 공공도서관 · 자원회수 PR · 야간경관/사인) 발굴 · 설계함.
- 방문 도시의 스토리텔링 · 운영 방식을 전주시 도시브랜딩과 시민 체감가치 제고에 연계하여 정책 포트폴리오 재구성의 근거 축 마련함.

□ 추진방향

- 가나자와(보존 · 문화 · 생활형)와 오사카(혁신 · 관광 · 광역형)로 역할 구분하여 상호보완 비교 프레임 적용함.
- 제도 · 운영 · 재원 · 성과 4축 중심의 현장 기반 증거수집과 이용자 관찰을 병행함.

- 사례를 전주시 현안과 1:1 매칭하는 정책 번역 절차(배경→기법→수용성→지표)로 재구성함.
- 적용성(법·재정·조직), 가용성(예산·인력·기간), 수용성(주민·상인 등) 3요소를 동시에 검증함.
- 단·중·장기 단계 및 리스크 완화 방안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으로 결재-집행 연계를 확보함.
- 보고서 종결이 아닌 합동 브리핑·소규모 시범 착수·교류의제 정례화 등 후속체계로 지속 추진되도록 설계함.
- 추진은 비교-증거-번역-검증-집행의 연속선으로 구성하여 결재 이후 즉시 실행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

2. 출장 개요

□ 일반 개요

- 출장국가: 일본
- 출장도시: 가나자와(Kanazawa)·오사카(Osaka)로 구성됨
- 출장기간: 2025. 10. 13.(월) ~ 10. 16.(목) / 3박 4일
- 출 장 자: 15명(의원 11, 직원 4)
 - 대 표 의 원 : 남관우 의장
 - 출 장 의 원 : 김원주 운영위원장,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 최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규·최명권·온혜정·신유정·이보순·최지은 의원
 - 의 회 사 무 국 : 정상택 사무국장, 최용재 비서실장, 한은경·정헌규 주무관

□ 출장일정 및 주요내용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주 요 내 용
10/13 (월) (1일차)	인 천 오 사 카 가나자와	도착 역사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자와 도착 • 윤봉길 의사 사적지 참배 (헌화 및 기념촬영)
10/14 (화) (2일차)	가나자와	공공건축 문화시설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자와 건축관 시찰 • 우미미라이 도서관 현장설명 및 간담회
10/15 (수) (3일차)	나가하마 오 사 카	도시재생 환경시설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하마 구로카베스퀘어 자유견학 (전통건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 오사카 마이시마 공장 방문 (오사카시·야오시·마쓰바라시 환경시설조합) • 오사카 주요 상권 현장 조사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10/16 (목) (4일차)	오 사 카 인 천	역사 전시 시설 견학 및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 조폐박물관, 오사카 성, 오사카 역사박물관 견학 • 귀국편 탑승 및 일정 종료

□ 일정 구성 의도

- 본 연수는 가나자와 - 나가하마 - 오사카를 잇는 “문화·재생·환경·관광” 4축 구조로 설계되었음.
- 가나자와에서는 전통문화와 현대 공공건축의 조화, 시민참여형 도서관 운영모델을 조사함.
- 나가하마에서는 구로카베스퀘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형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 방식을 확인함.
- 오사카에서는 마이시마 환경시설의 광역 거버넌스, 중심상권 운영체계, 전시시설의 교육형 관광모델을 종합 검토함.

□ 세부 추진 방향

- 이번 출장의 세부 추진 방향은 도시별 특성과 주제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행되었음.
- 가나자와에서는 문화와 공공건축 중심의 정책사례를, 나가하마에서는 도시재생과 상권활성화를, 오사카에서는 환경과 관광행정의 연계운영을 중점적으로 조사함.
- 모든 일정은 현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관 면담, 운영자 브리핑, 시민 동선 관찰을 병행하며 제도와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또한 문화(가나자와)-재생(나가하마)-환경·관광(오사카)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일정 설계를 통해 주제 간 흐름과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였음.
- 각 일정 종료 후에는 주요 시사점과 전주시 적용 가능 과제를 내부 브리핑으로 공유하며,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한 성과지향적 보고 체계를 유지함.
- 결과적으로 본 출장은 단순 시찰이 아닌, 전주시 도시정책·환경·문화행정 발전을 위한 단계적 벤치마킹 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각 도시의 강점을 비교·분석하여 전주시형 융합 정책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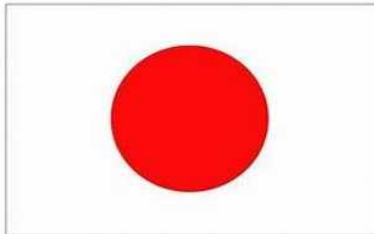
II. 출장 내용

- 1. 방문 지역 일반현황**
- 2. 우리 시 관련 사업 현황**
- 3. 벤치마킹 및 출장내용**

1. 방문 지역 일반현황

방문국가 현황 - 일본

- 수도 도쿄를 중심으로 혼슈·규슈·시코쿠·홋카이도 등 4대 섬과 약 6,800개 부속 도서로 이루어진 섬나라임.
- 면적은 약 37만 8천km², 인구는 약 1억 2,000만 명이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정착됨.
- 주요 산업은 제조업과 관광·서비스업으로, 최근에는 도시재생·환경·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일본 국기



일본 가나자와 지도

방문도시 현황 - 가나자와시(金沢市)

- 가나자와시는 이시카와현의 현청 소재지로, 인구 약 46만 명의 일본 중부 호쿠리쿠 지역 중심 도시임.
- 2차 세계대전 피해가 거의 없어 에도시대의 도시 구조와

전통건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공예 도시로 알려져 있음.

-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우미미라이 도서관’ 등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상징하는 주요 시설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공예·민예품 분야에 지정되어 있음.
- 전통과 현대의 조화, 시민참여형 문화행정, 친환경 공공건축을 도시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용한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됨.

방문도시 현황 - 나가하마시(長浜市)

- 나가하마시는 시가현 북부에 위치한 인구 약 11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로, 일본 소규모 도시재생의 대표 성공사례로 평가됨.
- 구시가지 ‘구로카베 스퀘어’를 중심으로 전통건물을 리모델링해 공방·카페·상점이 입주하며 활력을 되찾았고, 주민·기업·지자체가 협력하는 제3섹터형 운영방식을 확립함.
- 보행 중심 거리와 주민참여형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권과 경관을 함께 관리하며, 전주시 원도심 재생 정책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는 민관협력 모델로 평가됨.

방문도시 현황 - 오사카시(大阪市)

- 오사카시는 오사카부의 중심 도시로, 인구 약 270만 명의 일본 제2도시이자 간사이 경제권의 핵심 거점임.
- 상공업·관광·문화가 융합된 도시로, ‘도톤보리’와 ‘신사이바시’는 대표적인 관광·상업 중심지임.
- 오사카·야오시·마쓰바라시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시마 환경시설조합’은 광역 자원회수와 주민수용성 확보의 모범 사례로 평가됨.
- 오사카성·조폐박물관 등 체험형 문화시설과 세밀한 경관 관리 제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전주시의 상권·환경·관광정책 벤치마킹에 유용한 모델로 꼽힘.

2. 우리 시 관련 사업 현황

□ 우리 시의 도시·행정 여건 개요

-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 인구 약 65만 명 규모의 문화·행정·경제 거점임.
-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며,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미래도시 전환의 선도 사례로 평가됨.

□ 전통문화산업 및 관광정책 현황

- 전주는 한옥마을·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도시로, 한지·한복·한식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함.
-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지정 이후 문화·음식관광이 활성화되었고, 시민참여형 독서문화와 체험형 관광정책을 확산 중임.

□ 도시재생 및 구도심 활성화 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전라감영로·전주역세권 등 주요 사업이 포함됨.
- 객리단길·남부시장 등 원도심은 상권활성화와 경관 개선을 병행하며, 주민참여형 실행체계를 운영 중임.

□ 환경 및 자원순환 정책

- 광역형 자원회수시설 모델을 연구 중이며, ‘탄소제로 도시’를 목표로 폐기물 자원화·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함.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건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뢰 중심의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 스마트도시 및 혁신 행정

- AI·IoT 기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안전·기후 대응 등 12대 스마트서비스를 추진 중임.

- 적극행정 우수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비대면 행정 고도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완주·전주 통합 및 미래도시 비전

- 2040년 완주군과의 광역 통합을 목표로 5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AI·환경·문화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을 통해 전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 시 전통문화산업 SWOT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Strengths 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내 풍부한 역사문화자산과 확고한 전통문화 브랜드(한지·한복·한식) 보유 •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지정으로 국제 인지도와 도시 이미지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Weaknesses 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중심 운영으로 민간 자생력과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 체험·야간 콘텐츠 미흡으로 관광 체류시간 짧음
<p style="text-align: center;">Opportunities 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문화도시 정책 확대 및 K-콘텐츠 수요 증가 • 스마트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Threats 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자체와의 경쟁 심화, 시민 피로감 증가 • 전통기술 전승 인력 감소 및 관광경기 불안정

- 전주는 전통문화 기반은 견고하지만, 운영체계 현대화와 산업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
- 앞으로는 민간참여 확대와 체류형·융합형 전통산업 육성이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함.

3. 벤치마킹 및 출장내용

(1) 양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및 역사·문화 교류 기반 확립

- 이번 출장은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자와시의 행정·문화 사례를 조사하고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됨.
- 첫 일정으로 윤봉길 의사 사적지를 방문해 헌화 및 참배를 진행하였으며, 주변을 인공조형물 없이 단정히 정비한 경관이 인상적이었음.
- 이 사례는 전주시의 역사기념지 관리에도 참고될 만하며, 단순 기념시설이 아닌 ‘체류형 추모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함.



(2) 공공건축 및 도서관 운영사례 조사

- 가나자와 건축관은 건축자료 전시와 시민교육을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음.

-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전시기획에 참여하는 구조로, 개방형 공간과 친환경 설계가 특징임.
- 전주시 완산도서관과의 우호 협약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시민 참여형 전시·야간 개방 프로그램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함.



가나자와 건축관

가나자와 건축관 현장



우미미라이 도서관

내부 열람홀 전시공간

(3) 도시재생 및 환경시설 운영 사례

- 나가하마의 구로카베 스퀘어는 주민·상인·행정이 협력해 거리 전체를 브랜드화한 도시재생 모델임.
- 오사카의 마이시마 환경시설은 예술적 외관과 공개형 운영으로 ‘혐오시설’을 ‘학습시설’로 전환한 대표사례임.

- 전주소 향후 광역자원회수시설 추진 시 기술 효율성뿐 아니라 정보공개·시민교육 병행이 필요함.



(4) 상권 운영 및 역사관광자원 관리 사례

- 도톤보리·신사이바시 상권은 간판·조명·환경정비가 통합 관리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음.
- 조폐박물관·오사카성·역사박물관은 체험형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학습 기능을 병행함.

(5) 종합 소결

- 가나자와·나가하마·오사카의 사례는 모두 시민참여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가 공통된 핵심임.
- 전주는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형 관리구조를 확립해 전주형 지속가능 행정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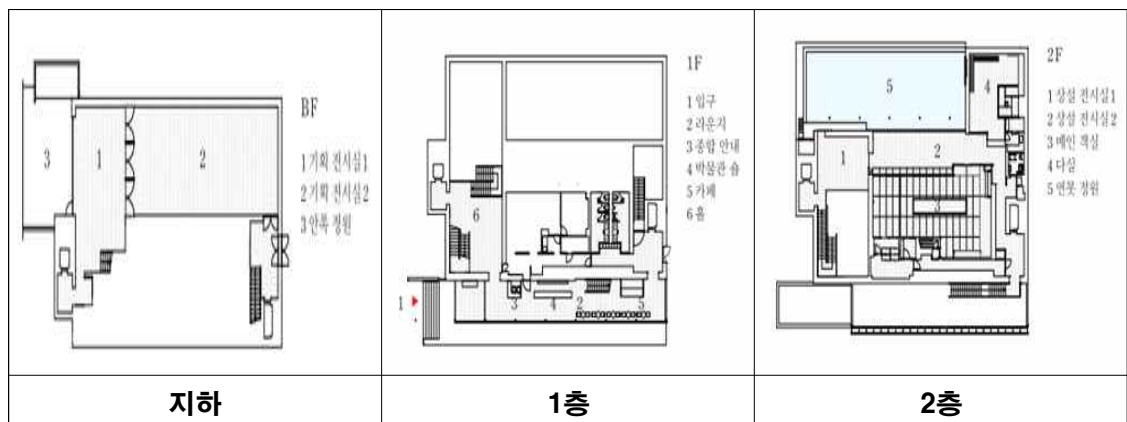
□ 주요 방문 기관

(1) 가나자와 건축관 (Kanazawa Architecture Center)

○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소재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데라마치 5-1-18
공사기간	2017년 7월 ~ 2019년 5월
시설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약 1,570㎡
운영주체	가나자와시청 도시경관과 / 지역 건축협회 공동운영
방문일시	2025. 10. 14.(화) 오후

[층별 안내도]



- 가나자와시 건축문화의 자료보존, 전시, 교육, 연구 기능을 통합한 공공건축기관으로, 지역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시내 주요 건축물의 도면, 사진, 모형, 인터뷰 자료를 수집·아카이브화하여 시민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
- 지역대학(가나자와공예대학)과 협력하여 건축사 강좌, 어린이·시민 워크숍, 공공디자인 포럼 등을 상시 개최하고 있음.

- 시설 전면은 목재 루버와 유리벽면으로 구성되어 주변 거리와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 내부 전시실은 주제별 섹션으로 구분되어 근대건축, 한옥형 목조건축 등 학술적 비교 전시를 포함하고 있음.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의 집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민의 건축 경험을 기록·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주 한옥 및 근대건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할 수 있는 ‘전주건축아카이브센터’ 설립 검토가 필요함.
-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관리 전 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협의체’ 도입이 타당함.

(2) 가나자와 우미미라이 도서관 (Kanazawa Umi Mirai Library)

○ 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지추마치 이1-1
부지면적	11,763m ²
연면적	5,438m ²
시설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 약 40만 권 수용
건축연도	2011년 3월 준공(설계자: 카주미 쿠도·히로시 호리바)
방문일시	2025. 10. 14.(화) 오후

- 우미미라이 도서관은 가나자와 시민의 생활SOC 거점이자, 현대 공공건축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됨.

- 외벽에는 약 6,000개의 원형 타공창이 설치되어 자연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내부는 중앙 개방형 열람홀을 중심으로 아동존·시니어존·전시홀·북카페·메이커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음.
- 도서관은 ‘하나의 큰 거실’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되어 이용자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며, 시민이 직접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커뮤니티 큐레이션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야간에는 외벽 타공창을 통해 은은한 조명 효과를 연출하여 지역의 상징적 건축물로 인식되고 있음.
- 전주 공공도서관에도 시민전시, 메이커 활동, 야간개방 등 복합문화 기능 확대가 필요하며, 완산도서관과 전주학센터의 연계운영을 통해 지역형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3) 나가하마 구로카베 스퀘어 (Kurokabe Square)

○ 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일본 시가현 나가하마시 모토초 12-38
조성연도	1988년 (도시재생 프로젝트 착수)
운영주체	구로카베 주식회사(민관합작) 나가하마시청 도시정비과 지원
방문일시	2025. 10. 15.(수) 오전

- 구로카베 스퀘어는 유리공예점 하나에서 시작된 민간 주도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현재는 30여 개의 공예점·전시관·카페·체험공방이 입점해 관광거리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주민·상인·행정이 공동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가 거리의 경관·간판·색채를 통합 관리하며, 개별 점포보다 ‘거리 전체의 경험 설계’에 중점을 둔 체험형 관광모델을 구축함.
- 상점과 공방은 창문과 출입구를 투명화하여 방문객의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고, 개방감 있는 거리 이미지를 조성함.
- 전주 원도심(객리단길·전라감영 일대)에도 거리 단위 통합 브랜딩과 운영협의체 도입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을 점포 중심이 아닌 ‘연속면 활성화 모델’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4) 오사카 마이시마 환경시설조합(Maishima Incineration Plant)

구분	내용
소재지	일본 오사카시 고노하나구 핫코시라쓰 1-2-48
공사기간	1997. 3. ~ 2001. 4.
처리용량	하루 최대 900톤 / 오사카시 전체 배출량의 약 25%
설계자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F. Hundertwasser)
운영주체	오사카·야오시·마쓰바라시 환경시설조합
방문일시	2025. 10. 15.(수) 오후

- 마이시마 환경시설은 오사카 서북부 인공섬에 위치한 광역형 자원회수시설로, 오사카·야오시·마쓰바라시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소각, 대형쓰레기 파쇄, 에너지 회수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효율적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건축가 훈데르트바서의 독창적 디자인을 적용해 외관의 조형미와 친환경성을 결합하였으며, 폐열을 지역난방과 전력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운영함.
- 주민 견학·환경교육·홍보전시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배출수치·소음·악취 정보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확보함.
- 전주 역시 향후 광역폐기물시설 추진 시 정보공개와 시민교육, 견학 프로그램을 병행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하며, ‘환경기술 + 시민소통’의 융합형 행정모델 구축이 필요함.

(5) 오사카 조폐박물관 (Japan Mint Museum)

○ 시설 개요

구 분	내 용
소재지	일본 오사카시 기타구 덴마 1-1-79
운영기관	일본국 조폐국
시설규모	전시실 2층 / 체험관·자료실 포함
방문일시	2025. 10. 16.(목) 오전

- 조폐박물관은 일본의 화폐 제조와 역사 과정을 전시하는 국가 직속 박물관으로, 동전 주조·디자인·인쇄 공정을 실물 장비와 모형을 통해 소개하고 있음.

- 어린이 체험존(주조 스탬프 체험)과 다국어 전시가 마련되어 있으며, 화폐를 매개로 산업·문화·역사교육을 통합해 교육형 관광지로 기능함.
- 전주 역사박물관 및 산업유산시설(섬유·인쇄·공예 등)에도 이와 같은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6) 오사카 역사박물관 (Osaka Museum of History)

○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소재지	일본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4-1-32
시설규모	지상 13층 / 연면적 40,000m ²
운영주체	오사카시립문화재단
방문일시	2025. 10. 16.(목) 오후

- 오사카 역사박물관은 도시의 형성과 문화 발전사를 주제별로 전시하는 공공박물관으로, 디지털 모형과 시뮬레이션 영상, 시대별 체험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형 전시공간임.
- 전시층마다 고대(난바시대)에서 근대(상공업 도시)에 이르는 역사 흐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며, 학교연계 학습지와 학생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음.
- 전주역사관과 전라감영 등 역사시설에도 교육과 체험이 결합된 ‘교과연계형 체험모듈’을 도입하고, 시민자원봉사 도슨트 제도를 통해 지역문화 해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Ⅲ. 시사점

- 1. 우리 시 도입과제**
- 2.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3. 참고문헌**

1. 우리 시 도입과제

○ 일본 가나자와·나가하마·오사카의 공공건축, 도시재생, 환경시설, 문화관광 행정을 직접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주시의 지역정체성 강화와 행정운영 위한 도입과제 도출하였음.

도입과제	내용	도시	주체	단계
전통·현대 융합형 공공건축 운영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자와 건축관 사례를 바탕으로 전주 한옥·근대건축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화하고, 전시·교육·시민참여 기능을 통합함. · 공공건축 기획 단계에서 시민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자인·운영의 품질을 향상시킴. 	가나자와	도시재생과 건축디자인과	단기
시민참여형 도서관 운영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미미라이 도서관의 커뮤니티 큐레이션 제도 벤치마킹. · 완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민전시, 메이커스페이스, 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한 ‘생활형 문화플랫폼’으로 전환함. 	가나자와	평생학습과 도서관운영팀	단기 ~ 중기
거리단위 통합운영형 도시재생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하마 구로카베 스퀘어 처럼 점포 단위가 아닌 ‘거리 단위 브랜드화’를 추진. · 객리단길·전라감영 일대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인·주민·행정이 공동운영 위원회 구성함. 	나가하마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팀	중기

<p>광역형 자원회수시설 신뢰거버넌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사카 마이시마 환경시설처럼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개형·학습형’ 공간으로 운영. · 운영정보 공개, 환경교육·견학프로그램 상시화, PR센터 설치 추진. 	<p>오사카</p>	<p>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p>	<p>중기 ~ 장기</p>
<p>상권관리협의회 제도화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톤보리·신사이바시의 상권관리모델을 참고하여, 전주시 문화의거리·남부시장·객리단길에 ‘상시운영형 관리협의회’ 신설. · 간판, 조명, 청소, 흡연구역 관리 규정을 통합한 운영 규정 마련. 	<p>오사카</p>	<p>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과</p>	<p>단기 ~ 중기</p>
<p>역사·산업시설 체험형 교육모듈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폐박물관·역사박물관의 체험형 교육을 참조하여, 전라감영·전주역사관·한문화산업시설에 ‘체험학습+도슨트 해설’ 프로그램 도입. · 초중등 교과와 연계한 탐방노트·스탬프 투어 개발. 	<p>오사카 가나 자와</p>	<p>문화정책과 교육협력팀</p>	<p>중기</p>

- 단기(2025~2026년)에는 완산도서관과 전라감영 일대를 시범 사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건축·도서관 운영 협의체 및 상권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간판·조명·청소 등 관리규정을 마련함.
- 중기(2026~2028년)에는 광역폐기물시설 PR센터 설계 및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객리단길 중심의 도시재생 통합브랜드를 추진하며, 시민참여 전시와 야간개방형 도서관 모델을 확산함.

- 장기(2029년 이후)에는 전주형 생활SOC 복합문화플랫폼을 완성하고, 공공건축·환경·상권·역사자원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함.
- 일본 사례는 시설 중심이 아닌 운영 중심 행정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며, 전주시도 시민참여-운영협의-지속관리 중심의 구조로 재편해야 함.
- 이를 위해 부서별 공간·시설을 통합 관리할 “전주시 지속가능도시 TF” 신설이 필요하며, 단기 개선과 중장기 인프라정책을 병행해 공공운영 혁신모델을 구축해야 함.
- 전주는 시민참여, 정보공개, 운영효율성을 핵심으로 한 도시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각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과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을 병행할 예정임.

2.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 해외출장을 통해 가나자와·나가하마·오사카의 공공건축, 도시재생, 환경시설 운영에서 시민참여를 제도화한 지속가능 행정모델을 확인함.
-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공공시설을 행정자산이 아닌 시민공동체 중심의 생활 플랫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문화·환경·관광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부서 간 중복을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완산도서관·전라감영·객리단길 등 주요 거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참여형 운영모델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전주시는 행정 혁신과 시민 만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공공운영 선도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3. 참고문헌

- 전주시청,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2020. 9.
<https://www.jeonju.go.kr/index.9is?contentUId=ff8080818990c349018b041abe473b85>
- Kanazawa市, 『Kanazawa UNESCO Creative City of Crafts 2017-2020 Monitoring Report』, 2017.
https://www4.city.kanazawa.lg.jp/material/files/group/30/2017-2020mr_eng.pdf
- UNESCO, “Kanazawa - Creative Cities Network”, UNESCO 공식 웹사이트.
<https://www.unesco.org/en/creative-cities/kanazawa>
- Maishima Incineration Plant (오사카시 환경시설조합), “A state-of-the-art incineration plant … Free tours are available”, Osaka Info 공식 웹사이트.
<https://en.osaka-info.jp/spot/maishima-plant/>
- 공공시설녹화건축대상(예시로 건축사례 포함), “Osaka City Environmental Bureau Maishima Incineration Plant”, Showa Sekkei 프로젝트 페이지.
<https://www.showa-sekkei.co.jp/en/project/?id=92showa-sekkei.co.jp>